



##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지난 2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에 본 예배당에서는 재의 수요일 예배를 가졌습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3~12)이란 제목으로 윤경문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사순절 계율준수 초청 및 시편낭송,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이 한사람씩 재의 안수를 받는 안수식이 있던 후 소기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고백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목상집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목상하며, 기도와 절제(금식), 구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성 금요일 (Good Friday)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은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신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 금요일 예배가 4/2(금), 오후 7:30분에 있었습니다. 수난 메세지 말씀과 지난 4년간 출간된 “사순절 목상집”에 신앙간증/수필등을 기고해 주신 교인 몇 명의 목상글 낭송, 그리고 성 금요일 특별 찬양이(1부 찬양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 부활주일 (Easter Sunday)

“엠마오의 나그네” (누가복음 24장 13-35절): 4월 4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영길 목사님께서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게 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곧 부활의 눈을 소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활의 눈을 가지고 시각 장애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부활의 눈을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그네가 되길 결심합니다. 더 이상 엠마오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부활의 나그네가 되어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확신과 함께 나그네 길을 떠나갑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는 성찬예식을 가졌습니다.



### 4월호 차례

- 재의 수요일
- 성 금요일 (Good Friday)
- 부활주일
- 담임목사 메세지
- 당회 소식
- 건축위원외
- ECC 모금 위원외
- 사회정의위원외
- 집사외 소식
- 상록기도회
- 권사외
- 남연교회
- 에스더 여연교회
- 마리아 여연교회
- 성금요일 기도문
- 부부청년부
- 정지기 청년1부
- 중고등부
- 애바라기 주일학교
- 새교우 환영반
- 웨마의 밤
- 광고

# ‘우주가 내 안에’

이영길 담임 목사

지난 쉐마의 밤에 우주와 세포의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우주와 세포의 모양이 얼마나 비슷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주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곧 주일 아침에 어떤 교우님이 저에게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인상 깊게 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하여 보니 정말로 우주와 세포가 비슷한 것을 본 후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주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나요? 부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우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주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 1. 유년,초등주일학교(Sunflower Children’s Group)의 부장 및 교육 1부 부위원장으로서 이은주 집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 2. Haiti 지진 피해자 구제 헌금으로 \$4,000을 총회 Disaster Relief for Haiti에 보냈습니다.
- 3. Brookline Community Mental Health Cen-

ter의 50th Anniversary banquet(5/14)에 \$1,000을 지원했습니다.

\* 정정: “ 한울타리(2010. 2.7.일자, Vol. 40. No. 1) 당회소식에 교정, 추가: ‘인사위원장’ 홍동욱 장로로 나간 것을 ‘인사위원’으로 수정하고, 공천위원 4명 외에 이름이 빠진 공천위원 김태만 집사(집사회 대표)를 추가함.

# 건축위원회

이제 ECC 건축이 완공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내부 공사의 마무리 작업으로는 현관과 어린이 체플 안에 설치될 나무 벤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루 바닥을 까는 일들(flooring)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AC/Ventilation 설치 작업에 들어갔으며, 전기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와 Fire alarm 설치를 끝냈으며, 이제 Inspection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마지막 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1층에 핸드캡 access가 가능한 Family Rest-room이 작업 중이며, 아랫층 화장실들에 타일 작업

# ECC 모금 위원회

건축 기금 마련 옥션과 음악의 밤  
(ECC Fundraising Auction and Music Night)  
2010. 5. 15 (토) Saturday 6:00 pm ~ 8:30 pm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금위원회에서는 마지막 fundraising 행사로 옥션과 음악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저녁부패 식사와 우리 교회의 재능있는 어린 음악가들의 멋진 연주가 있는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예술 작품을 싼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옥션은 Silent Auction 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시된 각 물품아래 비치되어 있는 종이에 자기가 내고자 하는 액수를 적어, 정해진 마감시간에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넣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월 5일까지 옥션을 위한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아끼시던 가치있고 귀중한 물건들을 교회의 건축을 위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옥션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기증받습니다.

1. 그림 (Paintings): 서양화, 동양화, 조선시대, 현대 미술 등 각종 그림들을 모읍니다. 단, framing이 다 되어 있어 벽에 걸 수 있는 상태면 좋겠습니다.

2. 조각품 및 장식품 (Sculptures and Decoration Items): 표구 제품, 골동품, 조각품, 도자기 등 집안을 장식 할 수 있는 가치있는 물건들을 모읍니다.

3. 악기 (Musical Instruments): 더이상 쓰지 않지만 아주 상태가 좋은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등등) 을 모읍니다.

4. Gift Certificates: 각 상점에서 발행한 선물교환권, 헬스클럽 사용권, 골프코스 이용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Red Sox, Patriots) 도 아주 좋은 품목입니다.

5. 운동 용품 (Sports Equipment): 골프채, 골프 장비 및 옷, 그 밖의 가치 있는 운동용품을 모읍니다.

6. Sports Memorabilia: 유명 운동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볼, 유니폼 등의 가치있는 소장품이 있으면 기증하여 주십시오.

\* 기증하시고자 하는 물품들을 Pledge Form (교회 사무실에 비치됨) 에 기입하셔서 5월 5일까지 모금위원회나 교회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정의의 위원회

〈세계정의와 평화를 위한 2010 Ecumenical Advocacy Days Conference를 다녀와서〉

김명연 강로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는 이민자의 교회이며, 많은 분들이 이민의 과정을 거쳐 이곳에 정착하였고, 나 자신도 한 이민자로서 이민자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Washington D.C.에서 만난 분들의 이민간증은 실상 상상 밖의 이야기

를 하고 있었다.

한 가족이 20년째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Sacramento에서 온 네 아이의

어머니 Laura, 아이티에서 온 뉴욕 Taxi Driver가 온 가족이 이 곳에 있는데도 강제 출국을 당한 Mark, Undocumented 이민자들을 Rat이라고 불리우며 헬리콥터와 총으로 중무장한 이민국 직원들에게 무차별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이야기, Florida의 멋진 휴양지에서 불과 한시간 떨어진 Tomato농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등등... 이들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Pedro라는 어린 아이는 “I am sad, very sad” 라고 할 수 밖에 없었고, 한 이민자는 “I am not a criminal” 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와 우리 당회의 협조로, 지난 3월 19일 부터 22일까지 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2010 Ecumenical Advocacy Days” Conference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모든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40여 단체에서 700여명이 참석, “A Place to Call Home: Immigrants,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s” 라는 주제로 예배, 찬양, 기도, workshop, exhibits 등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실 우리 모두가 빠듯한 이민 생활 속에서 이런 세계평화와 undocumented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문제라고 여겨 왔고, 특히 불법이민자는 그들이 잘못 했으니까라고 일축해 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 conference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로 조명 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강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이 (예로서 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국경의 산업을 폐허화시키고, 밀입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군사 경계선 같은 Mexico 국경의 Ugly Wall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자연이 훼손을 입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과정의 불법을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인간적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며, 새로 거론되고 있는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통해서 1,200만 내지 1,500만의 그늘속에 있는 undocumented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최근의 한 report에 의한 새 이민개혁법의 골자는:

1. Create justice with humane economic policies
2. Protect the labor rights of ALL workers
3. Develop a clear path to permanent residence
4. Respect the civil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s
5. Demilitarized the U.S.-Mexico border
6. Make family reunification a top priority
7. Ensure that immigrants and refugees have access to services

우리가 속한 PC(USA)도 백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여, Mexico 국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국경을 몰래 넘어 오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도와 주지만 그들에게 차편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고 한다.

여러가지 국경 사역중에 어려움도 많지만, 주민들과 함께 Coffee 재배 및 가공하는 Fair Trade 사역은 좋은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간혹 Fair Trade 라고 표시가 붙은 상품은 이러한 어려운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드리면 우리가 그 분들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Washington Mall에서 열리는 “March for America- Change Takes Courage and Faith” 에 참가 할 기회가 있었다. 약 20만명 이상이 (대부분이 히스패닉) 모여 이민자들의 기본권과 권익, 처우 개선을 위한 시위가 축제 분위기 같이 열렸으며, 미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의 열기와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미약하지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며, 이웃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집사회 소식에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면서, 집사회는 당회에서 위임되는 일과 자체적인 봉사활동, 친교와 선교활동을 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집사회에서 하는 일들 중 교인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

으면 합니다.

당회에서 위임되는 일은 실제로는 대부분 교회 운영에 집사들이 참여해야 할 일들로 각 부서들이 언제나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건물의 큰 보수 공사를 제외한 작은 유지 관리는 집사회 건물관리부가 해야하고, 도서관 관리 및 정리는 도서관부가 담당합니다.

한편 경조부는 지역 교회의 행사나 교인들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는데, 장례가 있을 경우 경조부에서 직접 화환을 필요한 시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해야하는 일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인들에게 이전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경비안전부는 우리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타벅스 뒷쪽 켄트 스트리트의 프라이빗 주차장은 교회에서 새교인들을 위해서 켄트한 것 입니다. 앞으로 교인들에게 그곳 이외의 편리한 주차공간을 안내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가 켄트한 주차장을 편히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집사회 경비안전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일을 교회 밖에서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중에는 구체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각 구역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홈리스 쉼터를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활동에는 모금바자, 전교인 체육대회, 모금 골프대회등의 행사를 집사회에 소속된 관련된 부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행사로는

1.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바자(5월 2일),
  2. 어머니 주일 오찬(5월 9일)이 있고,
  3. 교회 대청소(ECC건물이 완공에 맞추어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주일날 예배 후에 공원에 가서 식사를 하며 하는 전교인 체육대회(5월 30일)
  5. 건축모금 골프대회등의 행사도 있습니다.
- 집사회 임원 및 부서장들은 행사를 준비하지만, 참석하는 교인 각자가 행사의 주인입니다.

모두 기쁘게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상록기도회

지난 3월 20일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던 고 김순규 장로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4월 11일(주일)에는 상록기도회가 주최하는 음식바자를 가집니다. 최근 아랫층 부엌 Renovation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기금모금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먼저, 상록기도회에서 술선하여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록기도회 분들이 손수 만든 신비빔밥, 잡채, 생선과 두부전 등 푸짐한 음식 바자를 엽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에서는 건축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월 22일 (월)에 ECC 건축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기도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고, 윤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Coffee와 김은숙 권사님 내외분이 정성들여 만드신 맛있는 간풍기, 한승희/김경애 권사님께서 ECC 건축 완성을 위하시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기에도 크고 먹음직스런 Cake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대화 중 하나는 권사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게 되면 남자분들의 식사문제로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이야기, 또한 남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자취생활을 많이 했다고 염려 퍽 놓으라고... 또한 밥을 하다가 술을 태워 서로 누룽지를 긁어 먹다가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술 밑바닥이 홀라당 빠져 두번째로 산술은 위와 밑바닥이 통째로 된 술을 샀다는 말은 웬 말이고?

오가는 정겨운 대화로 건축물의 환한 모습이 곧 보일 것으로 믿고 식사하며 웃음을 담고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ECC건축이 머지않아 멋지게 완성이 될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깊은 감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남선교회

### 이원결 집사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

저희 남선교회에서는 ECC 완공에 때 맞춰 우리는 한가족 운동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옷놀이 대회를 시행하며 많은 교우 여러분의 바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머니 주일 찬양제 (5월 9일)때 행사 시작하기전 남선교회 회원들이 저희 교회 어른되시는 상록기도회 회원님들께 존경과 공경의 예를 표하고 선물 드린 후 찬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연습을 하고있으니 35세부터 64세까지의 음악을 사랑하고 찬양을 즐겨하는 우리교회 남성은 누구나 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

습 스케줄은 김영범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또한 각 구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주일 찬양제때 구역과 구역발표사이 및 발표 시간에 각 구역의 가족구성 및 활동하는 모습, 아름다운 순간을 slide 편집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각 구역에서는 사진을 찍어 (20장 정도) 남선교회 유승오 집사님께 4월 18일 까지 e-mail로 보내시거나 CD로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선교회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 릴레이, 사진콘테스트, 탁구대회 등에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히 내용을 기입하시어 교회 사무실에 있는 남선교회 mail box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에스더 여선교회

박애리 집사

3월 14일 2부 예배때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의 전반적인 소개와 각 부서에 대한 소개의 시간이 있었고, 에스더 여선교회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은혜로운 특송 찬양으로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9일 예배 후, 어머니주일 행사로 에스더 여선교회 선교부 주최 구역/기관별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선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풍

요로운 상품들이 후원될 예정입니다. 전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선교회 봉사부에서 매주 2부 예배 후 친교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봉사 하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뜻이 허락되시는 교우님들은 봉사부장인 김윤정 교우님께 연락하시거나 (Tel.617-999-6682) 주일 오전11시쯤에 교회 부역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리아 여선교회

1. 매년 3월 첫 금요일은 세계기도일로 지정된 날로, 올해는 3월 5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카메룬의 여성들을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3국의 핍박 받으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교파를 초월하여 근교의 교회 여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 퀸지영생교회의 이충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여선교회원들과 더불어 40여명의 교인들이 순서에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이날 모아진 500여불의 헌금은 한인교회 여성 연합회 (KCWU)에 보내지고, 제3세계 나라의 필요한 곳에 선교기금으로 보내어져 쓰여지게 됩니다.

2. 동북대회 연합수련회 및 임시총회에 초대합니다. 참가하시기 원하시는 여선교회원은 김한나 집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스톤 노회 여성 Spring Gathering 이 5월 2일 (주일) 오후 3시부터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콩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Anne Crane이 오셔서 강의 해주십니다. 여선교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주안에서 누리는 더 풍성한 삶"

- 강사: 김성희 목사  
(요 10:10)

현재 아름다운교회 부목사님으로 제자훈련과 중보기도사역, 목장사역, 전도폭발사역을 담당 하심.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 수학과 졸업.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에서 M.D.V 와 T.H.M. 과정수료.

- 일시: 2010년 4월 16일 (금) 오후 5시부터  
17일 (토) 오후 3시

- 장소: Camp Washington Retreat Center  
190 Kenyon Rd.,  
Lakeside, Ct. 06758 (Tel:860-567-9623)

- 임시총회 안건: 회칙개정

- 대상: 전 교회 여선교회 회원

- 등록비: overnight: \$55.00 commuter: \$25.00

- 지참물: 타올과 침구용품을 제외한 개인 세면도구 및 생필품, 성경책, 필기도구, 기타

# 성금요일 기도문 (Good Friday Service Prayer)

이은주 집사

Lord Jesus, our gentle Shepherd and humble Savior

On this dark day You allowed yourself to be crucified and accepted humiliation that we may be spared of punishment.

Jesus, we are as weak and sinful as the people who watched you die on the hill of Golgotha.

We give in to our insecurities, our greed and ignorance.

We do not have the courage to always act in righteousness, love and compassion.

In our fear, we ignore the meaning of Your sacrifice.

Lord Jesus, please forgive us for our indifference to Your cross.

On this Good Friday, help us to feel Your suffering and share Your pain ;

So that we may see that You are indeed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Each of us has suffered hardships, sickness, sorrow, pain. As a parent, a son or daughter; in school, at work, and at church -- we have faced burdens that we have neither wanted nor welcomed.

Lord Jesus, reveal to us Your heavy cross and bitter passion so that we can willingly and gratefully accept the trials that You have placed in our way.

Help us not to run from challenges but rather to rejoice in them, understanding the Truth that You have taught us.

Lord, help us to proudly carry our crosses that we may follow You to eternal life.

Lord Jesus, on with the arms that You have stretched upon the splintering wood of the cross, draw us to You that we may find You now.

Let us feel the nails in Your hands and be reminded of Your caring and generosity.

Let us feel the nails in Your feet and understand Your

faithfulness and mercy.

Through Your bleeding head, teach us patience and humility.

Through Your wounded heart, teach us unconditional love and forgiveness.

In these last days of Holy Week, grant that this be a time of self-reflection and repentance for each of us.

May we bow down before You and lay out all of our regrets, our pain, and our selfishness.

Cleanse our souls and purify our hearts so that we may awake on Easter morning, to be reborn in the joy and light that can only be found in meeting our Savior Jesus Christ, newly risen.

주님, 이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드리게 하시고, 고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인 지금,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제 곧 올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줄 기쁨과 희망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





## 부부청년부

이지훈 교우

우리 부청의 모임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와 말씀 찬양 모임, 격주로 배우는 수요일 성경공부 모임, 함께 모여 기도하길 원하는 가정들의 금요일 기도 모임, 매월 둘째주에 모이는 토요일 기도 모임, 그리고 조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 모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새로 부청에 가입하신 7가정을 중심으로 부청에 새로운 활력과 따뜻함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난 2, 3월에 있었던 부청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일은 매주 돌아가며 조별 말씀나누기, 소기범 목사님 강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교우님의 삶 나누기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루 한장 신약성경읽기 운동을 1월초 시작하여 오는 5월경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격주로 모이는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는 소목사님의 인도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모임은 매주 5~7가정이 꾸준히 모여 각 가정의 한 주의 삶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

눌 수 있어 행복하고 또 기도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월례회때는 최근에 새로 가입하신 4가정을 중심으로 가입 환영회를 가졌고, 3월의 월례회때는 교육 2부장으로 수고하시는 홍동욱 장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월에는 부청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수양회를 23~24일간 1박2일 일정으로 갖게 됩니다. 열다섯 내지 스무가정이 모여, '사랑의 공동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목사님의 말씀과, group activity,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많은 활동이라 다소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받는 은혜와 사귄의 효용이 워낙 커서 이번 수양회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푸짐한 상품이 걸린 성경퀴즈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청지기 청년1부 소식

김주영 교우

우리 청지기 청년 1부에서는 2010년 기도하는 청년 1부가 되기 위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셋째 주, 넷째 주 "새벽 무릎"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청년 2부와 함께 가졌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감사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월 첫째 주 금~토 이틀간 교체와 새 친구 환영의 시간을 목적으로 교회 소예배실에서 Lock-in을 가졌습니다. 서로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2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제자반 2기를 시작하여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갈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 1부에서는 New Hampshire 에 위치한 White Mountain 으로 공동체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느끼며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 돌

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공동체 훈련은 특별히 자매 팀과 형제 팀으로 나누어져 각각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마지막 주에는 청년1부 총회를 가져 다음 학기 청년 1부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리더 한 명 한 명 기도

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1, 2부를 위해서 접식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중서 3구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섬김의 모습을 저희들도 이어가기를 바라며 항상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중고등부

이제 곧 문이 열릴 교육관을 위해 3월14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1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판매한 지 약 10분만에 매진되어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교육관이 완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림 속에 굶주린 배를 채우듯 많은 분들이 선뜻 비빔밥을 사주셔서 건축헌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16과 3/17일에는 ARISE Firm Foundation Revival이 Gordon Conwell Theology Seminary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27일에는 매달 있는 중

고등부 교사들의 예배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2/28일 부터 4/18일 까지 앞으로 세례받을 학생들이 Confirmation/Baptism Class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5/22일에 새 교육관에서 Confirmation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 Seniors: Esther Kim, Hyo-In Kim, Sehee Sim

- Juniors: Kwang Jin Ahn, SooYoung Bang Dawit Kim, Naeun Kang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5/7일 부터 5/9일 까지 Grotonwood Retreat Center 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단합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해바라기 유년 초등부

이은주 집사

지난 주일에는 학부모회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120개나 되는 계란과 푸짐한 부활절 선물로 아주 성대한 부활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새로이 어린이 성전이 문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년 초등부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1) 유년, 초등 주일학교는 11시에 시작해서 1시 20분에 끝나게 됩니다:** 초등부 학생들의 예배는 11시에 시작하게 되고, 예배와 분반공부 시간이 끝나면 Sunflower Roots (뿌리)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게임이나 순서를 통해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믿음의 뿌리를 다져줄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찬양팀이나 worship 팀등의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위한 Roots 프로그램에서는 매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11시부터 20분간 그날 예배에서 찬송할 새로운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반공부시간과 예배시간이 어어집니다. 예배 이후의 Roots 프로그램에서는 성경공부, 게임 등의 특별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2) 6학년은 중고등부로 안올라가고 Sunflower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고등부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같이 한 예배를 보기때문에 6학년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초등부가 예배 불 장소가 협소하여 지금까지는 6학년이 초등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새로이 여는 교육관은 충분히 6학년 학생들을 수용 할 수 있어서 이번 9월부터는 6학년이 아닌 7학년부터 중고등부로 올라갈 것입니다.

**(3)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우리 모두 ECC에서 새로이 시작할 프로그램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큰 은혜로움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Sunflower 주일학교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담당 집사인 이은주 집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617-332-1950 or eunice.lee@fmr.com).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새교우 환영반

2월부터 3월 걸쳐 새교우 환영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환영반에서는 많은 교우님들-교회 나온신지는 좀 되었지만 환영반을 거치지 않은 교우님들 몇몇과 더불어 새로 보스톤에 오신-이 참석하신 가운데 3번의 교육 과정과 환영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교우님들은, **최진영/이인영** 교우(부부 청년부), **박향배/박지선** 교우(부부청년부), **박성민/이영희**(중서 3구역), **정근희/이은경**(중서1구역), **이상운, 윤태호, 최희수**(중앙 3구역) 이십니다.

3월에는 이 분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정명상/강영숙 권사님택에서 융성한 파티를 열어주셨고, 서로를 알수 있

는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초대하여 주신 정명상/강영숙 권사님택에 감사 드립니다.



## 3월 쉼마의 밤



지난 3월 24일(토) 쉼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번 쉼마의 밤에는 신임 안수집사님 그룹이 손수

준비하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쉼마 찬양단(황동준 집사 인도)의 다채롭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순서로 신임 안수집사님들의 찬양이 있었고, 신임 안수집사이신 이창호 집사님의 진솔하고 은혜로운 신앙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참석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모두 축복해 주는 축복송을 불렀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란 제목의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족, 이웃, ECC 건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인동정

\* 출산: 함승모/정민소 교우택에서 득남(상원, Jan)  
김건철/신은경 목사택에서 득녀(지민, Katie)

\* 소천: 3월 20일에 고 김순규 장로님 소천 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Funeral Service: 3/24(수요일) 오전 11시에 Pilgrim Church(Sherborn)에서 가졌습니다.

## 광고

1. 4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Haffner Sinfonietta 정기 연주회(지휘: 박진욱 집사)가 Casey Theatre at Regis College에서 있습니다.

2. 5월부터 시작되는 성경공부 안내 : 5월부터 11시에 유년, 초등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성인 성경공부반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시간 10:30, 10:50).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성경공부는 현재 **10: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등록: 사무실 혹은 강길원 장로, 방경남 집사

#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재의수요일예배



• 재의수요일예배



• 성금요일예배



• English Ministry



• 해바라기 주일학교



• 중고등부 비빔밥 세일



• 토요일아침기도회



• 어린이예배당 내부전경